

# 세계가 기억한 5·18, 새로운 20년의 행진

## 기념재단, 20주년 주요사업 확정 발표

교류연대·교육문화·진실조사 등 4개부문 추진  
5·18 왜곡·편향 시 사례별 대응 방안 매뉴얼화  
성김 주한미국대사 면담·국제 학술포럼 개최도

5·18 기념재단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의 담론 속에서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20주년 기념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주년 기념사업의 특징은 5·18 왜곡·편향에 대한 사례별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 하고 '5·18 역사왜곡 저지국민행동' 등 대응 기구를 통한 활동을 강화한 점이다.

5·18 기념재단은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창립 20주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사업설명회엔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송선태 상임이사, 정춘식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김후식 (사)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참석했다.

변호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참배할 계획이다.

8월 30일 기념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8월 29일에는 한국역사연구학회, 학술단체협의회와 함께 '5·18과 공감'을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재단 20년사도 올해 안에 발간할 예정이다.

9월 초엔 김남주 시인 20주기 추모 문학행사가 계획돼 있다. 5·18 기념재단은 이 문학행사를 김남주 기념사업회와 공동개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아직도 5·18이 미해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5·18 역사왜곡 문제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올해 5·18은 미래 세대가 관심을 갖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5월 관련단체와 협의하겠지만 올해도 기념식에서 제창이 안된다면 상당히 큰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5·18아카이브 개관 12월로 연기

기록물 보관·전시 DB구축·디자인 구성 늦어져  
예산도 87억씩 절반가량 삭감...4월 개관 물거품

5·18 기록물 등 관련자료 기록·전시공간으로 사용될 5·18 아카이브 개관 일정이 끝내 연말로 연기됐다. <광주일보 1월 8일자 7면>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올해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아직도 5·18이 미해결된 문제로 기대를 모았지만 물거품이 된 것이다.

17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아카이브 개관 일정이 애초 4월 22일에서 오는 12월 초로 연기됐다. 개관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5·18 기록물 보관·전시를 위한 DB구축 및 전시관 디자인 구성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5·18 아카이브 관련 예산 87억 원 중 42.5%인 37억 원이 삭감된 점도 지연 이유 중 하나다.

시·도민들은 다음달 22일 예정대로 5·28 아카이브가 개관할 경우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식을 찾는 추모객 등에게 5·18 역사왜곡과 편향에 대응하고 5월 정신을 알리는 등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했었다.

한편,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5·18 아카이브 건물 중 1~3층은 전시공간과 영상관으로 활용되며 4층은 청소년과 여성 이용객에 중점을 둔 도서관, 5층은 수장고, 6층은 운송전 천주교 광주대학교장의 집무실 복원 및 사무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0분 해질 18시 42분 달출 20시 18분 달몰 07시 13분

미세먼지 '약간 나쁨'

비오고 황사 나타나는 곳이니 유의하세요.

광주	흐리고가끔비	11/19℃
목포	흐리고가끔비	9/15℃
여수	흐리고가끔비	13/19℃
나주	흐리고가끔비	10/19℃
완도	흐리고가끔비	10/19℃
구례	흐리고가끔비	12/21℃
강진	흐리고가끔비	10/19℃
해남	흐리고가끔비	10/17℃
장흥	흐리고가끔비	10/19℃
순천	흐리고가끔비	13/21℃
영광	흐리고가끔비	9/14℃
전주	흐리고가끔비	9/15℃
군산	흐리고가끔비	10/13℃
남원	흐리고가끔비	11/17℃
홍산도	흐리고가끔비	10/11℃

종류	종형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관심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관심	보통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목욕	03:08 ~ 08: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목욕	15:23 ~ 20:37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여수	10:10 ~ 03: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22:29 ~ 16:05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날씨						
최저/최고	6/11	5/10	1/9	0/13	4/15	5/16



노부부들의 결혼식 함께 한 '건전MT' 17일 오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참전 상이용사 노부부(3쌍)' 보은의 결혼식에서, 이날 행사를 마련한 학생과 예복을 입은 노부부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이번 결혼식은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직접 신부화장과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등 건전MT의 일환으로 치러졌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 학생 수십명에 돈 빌린 교수 '물의'

### 전남대, 진상조사 나서

전남대의 한 교수가 제자 수십명으로부터 최근 2~3년간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빌린 사실이 알려져 대학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대와 학교신문인 전대신문 등에 따르면 이 대학 B교수가 지난날 중순계 자신의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학생들은 급하게 필요하다는 교수의 말을 믿고, 교수의 계좌로 3만 원씩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입금 액수나 돈을 입금한 학생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학과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한 학생은 지난해부터 B교수의 강의를 받으면서 현금을 송금하기 시작

## 대포차·대포폰·대포통장

### 명의 빌려줘도 처벌 받는다

### 정부, '대포물건' 규제 추진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우 단순한 차명폰인지, 범죄에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로 한정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역사자형), 데코타일(정사자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장

유·스퀘어점

유생장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편라, 사이다, 한타, 쥬스)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  
· 풍부한 육즙  
· 부드러운 식감  
· 올일경이소와 지방 허브 즉석  
· 친환경 무근해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